

“1004쿠키 먹고 광주FC 응원 함께해요”

호남대, 월 1회 홈경기 수제쿠키 무료 제공 팬서비스
대학 마크 디자인해 개발...전공 연계 나눔봉사 활발

호남대학교가 전공과 연계한 재능나눔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K리그2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시민구단 광주FC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한마음 쿠키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호남대 창의융합대학(학장 송창수)과 조리와 학과(학과장 김영근)는 지난 20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서울이랜드FC와의 ‘하나원구 K리그2’ 12라운드 홈경기 입장객들에게 학생들이 만든 쿠키 1천4개를 나눠주며 응원했다.

전국대회 7회 우승에 빛나는 축구명문 대학인 호남대는 최근 2부리그 선두를 달리면서 1부리그 승격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광주FC를 응원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전공 연계 재능나눔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광주FC 팬 서비스를 마련했다.

조리학과 학생들은 호남대 마크 디자인을 한 ‘1004 쿠키’를 개발했고, 이날 경기에 앞서 월

드컵 경기장 남문 입구에서 입장하는 광주FC 팬들에게 쿠키 간식을 제공했다.

광주FC 관계자는 “팀이 상성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대가 이같은 팬서비스를 마련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팬들의 성원을 기대했다.

조리학과 김 학과장은 “이날 행사를 위해 휴일인 19일 학교 동아리 빵타자(지도교수 최상호) 소속 학생들이 쿠키를 만드느라 하루 종일 분주했다”며 “K리그2 선두를 달리고 있는 광주FC와 팬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대는 광주FC를 응원하기 위해 매월 1회씩 홈경기 때 1004쿠키를 만들어 입장객들에게 나눠 줄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광주FC가 서울이랜드FC를 3대 1로 이기고 7승5무(승점 26점)의 성적으로 리그 선두를 이어가면서, 호남대의 ‘한마음 쿠키나눔’ 행사가 빛을 발했다.



호남대 조리학과와 학생들이 비교과 서포터즈들이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서울이랜드FC와의 경기관람을 위해 입장하는 팬들에게 학생들이 만든 한마음 쿠키를 나눠주며 광주FC를 응원했다. /호남대 제공

조리학과과는 1999년에 개설 이래로 21년간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대통령 인재상 4회 수상과 더불어 세계요리대회 우승, 각종 국제대회의 수상, 대통령상 수상 등을 통해 학과 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서도 지원 및 봉사활동, 산업체 협력 등을 실시해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을 제공함을 물론 참여의식 고취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김종민 기자



광주매일신문 창조아카데미 제6기 독서동호회 창립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6기 독서동호회(회장 조상대) ‘go! 讀하게’가 지난 21일 상무지구 한 음식점에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 회장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하는 것은 단지, 남이 써놓은 책을 보고 읽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 권의 책보다 더 값질 수도 있는 혼신의 다해 삶을 사는,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과 마주하기 위해서다”고

창립 배경을 밝혔다. 이어 “활자로 쓰여진 글의 소중함 보다 여기 모인 회원들의 지난 흔적을 더 소중하게 기록하는 모임이 됐으면 한다. 주제와 저자, 책의 배경지를 답사하면서 풍부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독서동호회는 조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에 주도원·김보라씨, 총무에 한은혜·문병기씨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매월 한차례 정기모임을 열 계획이다. /임후성 기자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 2기 입학식

광주지역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전문 리더 양성교육 프로그램인 ‘2019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 제2기 입학식’이 최근 조선이공대학교 기동홀에서 개최됐다.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 과정은 광주시 소재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프랜차이즈화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연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및 인력, 시설, 정보 등을 상호 협력하기 위해 개설됐다. (세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과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창업경영과가 공동 주관하는 2

019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 제2기는 프랜차이즈 산업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실무형 전문가들로 구성된 명품 강사진을 초청했다.

조순계 총장은 “광주형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전남의 유일한 프랜차이즈창업경영과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프랜차이즈산업은 연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산업으로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공헌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민 기자



농협전남노동조합, 장성 남면서 농촌 일손돕기 행사

농협전남노동조합(위원장 안종팔)과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는 지난 22일 장성군 남면 일대에서 전국금용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전남지역본부 소속 분회장 70여명과 함께 사과 나무 적과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일손 돕기는 영농철을 맞이해 농협 전남노동조합 간부들이 농업인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사과

적과 작업을 했으며 또한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새싹삼을 구입해 판로가 어려운 농가에 힘을 보탰다.

안 위원장은 “농촌은 인구감소와 함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영농철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동조합의 사회참여 일환으로 농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동강대, 건축전공 재학생 3명에 장학금 전달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건축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동강대 건축토목조경학부 건축전공(학과장 이종진)은 지난 22일 본관 1층 장원홀에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광주시 전남도회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광주시회(회장 이길남)의 배건준 사무국장과 전남도회(회장 박영수)의 노성춘 사무국장이 참석해

건축전공 재학생 3명에게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동강대는 지난 2011년 시설물유지관리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기술 자문, 건축물 유지관리 분야 교과목 개설, 산업체 인사 초청 강연 등을 통해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매년 건축전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종민 기자



동구 지산2동, 어린이·어르신 뮤지컬 관람 행사

광주 동구 지산2동은 최근 가정의 달을 맞아 레미에린이극장 광주월드컵점에서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함께 뮤지컬 ‘흑부리영감’을 관람해 세대 공감을 이뤘다.

지산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기중)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관내 착한가게 20개소에서 매달 3만원씩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으로 마련됐다.

어린이와 어르신 70여명은 뮤지컬 ‘흑부리영감’ 관람 후 점심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갈수록 핵가족화 되는 시대에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일과 공리 끝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겠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북부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광주 북부소방서(서장 김남윤)는 대형화재 비상구 등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소다. 불법행위로는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포함)·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피프, 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



로 방치하는 행위다. /최환준 기자

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류경열씨 별세 류정태, 정희, 정옥, 성미씨 부친상=발인:24일(금) 오전8시, 장지:영락공원(화) 연락처:본관 지하1층3호(250-4403)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순례씨 별세 한근호, 기남, 정현, 영심, 영숙, 혜경, 혜자씨 모친상=발인:24일(금) 오전8시30분, 장지:장흥군장평면선영(매) 연락처:신관3층301호(250-4471)

그린장례식장(주) 24시 대기 TEL.062)250-4455

www.greenfuneral.co.kr

조영아 광주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사업 선정

광주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조영아 교수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조 교수는 ‘영어쓰기 지시문 조건이 창의성과 쓰기 학습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과제로, 쓰기 학습의 교육학적 실천방안과 학습모델 개발 및 적용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환류방안 등에 대해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총 533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유형별로는 ▲일반 (470개) ▲학문후속양성 (19개) ▲창의도전 (28개) ▲소외보호 (16개) 등이다. 조 교수는 일반유형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종민 기자

김성은 전남대 일본학과 교수 한국일본근대학회 학술상 수상

전남대학교 김성은 교수(일본학과)가 한국일본근대학회(韓國日本近代學會)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최근 한국일본근대학회 제39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일본근대문학을 영어 번역론 관점에서 새롭게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지난 2월 학술지 ‘일본근대학연구’에 ‘근대 일본의 영어 번역론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근대 일본에서 서양문화와 사상을 수용하면서 영어학자들이 이상으로 삼았던 번역이론과 실천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해 일본근대문화와 번역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일본근대학회는 일본의 근현대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로, 해마다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논문을 선정해 우수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김종민 기자



북부경찰서, 장기제납차량 번호판 영치

광주 북부경찰서(서장 김홍균) 교통민원실은 23일 관내 공용주차장 일원에서 제납 과태료 판독기로 장기제납차량을 적발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 미납과태료 징수에 앞장섰다. /북부경찰서 제공



여수 문수동 새마을부녀회, 김치 나눔

여수시 문수동 새마을부녀회 회원 16명은 최근 김치 50상자를 담아 경로당 13곳과 저소득층 37세대에 전달했다.

문수동 새마을부녀회는 경로당 어르신 떡국 나눔 행사, 거북선축제 음식부스 판매수익금 기부, 취약지 청결활동 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문수동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결혼

●성경호·강해순씨 장남 재현군, 윤철웅·김길남씨 장녀 희진양=25일(토) 오후 1시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7 까사디루웨딩컨벤션 1층 루제를
●강용근·이미숙씨 장남 흥선군, 김정수·최복레씨 차녀 연주양=26일(일) 오전 11시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7 까사디루웨딩컨벤션 1층 루제를
●김근섭(전 대한항공 이사)·안현순씨 차남 연중군, 조교영(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부회장)·김시은씨 장녀 선진양=25일(토) 오후 2시 광주 서구 광천동 웨딩그림 위더스 5층 엘린홀
●나영주·김미덕씨 차남 병희군, 이권수(교원건설 회장)·김숙씨 장녀 미지양=6월1일(토) 낮 12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디아망홀

등산

●광주 참조은산악회, 서울 북한산=25일(토) 오전 5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 롯데아울렛 7주차장, 문의 산행대장 010-3631-5913